

# 전남도, 우주·항공 기업 투자유치 본격 나선다

### 경기 소노컴 고양서 우주항공산업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업무·투자·입주협약 추진... 전문가 초청 포럼·상담부스 운영

전라남도도와 고흥군이 우주·항공·드론 산업 분야 협회, 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전남 우주항공산업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지난 22일 소노컴 고양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는 등 우주·항공기업 투자 유치에 본격 나섰다.

설명회는 수도권 소재 우주항공 앵커 기업에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현황을 알리고 우주국가산단 등에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뒀다.

행사에선 ▲우주항공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업무협약 ▲우주항공산업 기업유치 투자협약 ▲고흥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입주협약 등을 했다.

또한 우주항공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비롯해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초청, 우주항공산업 시장 전망과 고흥의 도심항공

교통(UAM)·드론 산업 현황에 대한 포럼도 진행했다.

특히 24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 전시회인 '서울 ADEX 2025' 기간 중에 개최돼 우주항공 분야 100여 기업·기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전남의 우주항공 분야 주요 인프라, 정주여건, 향후 추진사업, 기업 지원 인센티브 등을 수도권 기업에 알리는 상담 부스도 운영했다.

전남도는 제2우주센터 유치 및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민간발사체과 우주국가산단 등 핵심인프라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항공 분야 또한 국가중합비행성능시험장,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실증단지, 고흥드론센터, 무인항공 특화 농공단지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앵커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흥군과 함께 청년 공공임대주택, 전남형 만원주택을 2026년에 조성하고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2027년까지 구축하는 등 기업들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24~25일 전라남도청서 사회적경제 한마당

### 홍보 판매부스·사회적가치 의미와 성과 확산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가 24~25일 도청 앞 도민광장에서 '2025년 전남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전남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2015년부터 시작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경제기업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다.

올해는 '전남사회적경제, 새로운 시작과 도약'이라는 주제로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사회적경제기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판매부스 운영 등 사회적가치의 의미와 성과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에 기여한 사회적경제기업인, 지원기관 관계자 10여 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인의 목표와 도약 의지를 담은 주제영상 상영 등 사회적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특히 전라도 사회적경제조직 3개 단체가 심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4천100만 원의 물품을 지역아동센터 등에 기부해 연대와 협력을 통한 나눔 실천으로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40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기념식이 진행되는 25일에는 행사 참가를 사전 등록한 도민에게 선착순으로 1만 원의 부스 이용권을 지급해 착한소비에 촉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제품 브랜드·디자인 개발, 시설·장비,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2026년에는 사회적기업 인건비, 저리 융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 광주시, 배터리 해외인증 시험기관 지정 추진

### 지역 4개 연구기관·TUV라인란드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 배터리 해외 인증시험·평가 지원체계 마련해 수출 확대 기대

광주시가 지역 배터리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4개 지역 연구기관 및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과 손잡고 해외 인증 시험기관 지정에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3일 오후 1시10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친환경자동차인증센터, 광주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센터,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등 지역 연구기관 4곳, TUV라인란드코리아와 배터리 해외수출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문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지역 4개 연구기관 관계자 및 프랭크 마이클 주트너 TUV라인

란드코리아(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배터리 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국제 인증 절차에 필요한 시험·평가를 지역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지역 기업들은 해외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수도권 등으로 원거리 출장에 나서야 하는 불편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 광주시는 이를 해소하고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개 지역 연구기관을 하나의 통합 시험기관으로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배터리 해외 인증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상호 협력 ▲시험·인증 및 평가 지원체계 구축 ▲지역 기



업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자문 및 지원이다. 특히 광주시는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인 TUV라인란드코리아와 협력, 지역 내 4개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력, 기반시설, 네트워크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지역 배터리 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와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시험 및 평가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광주가 배터리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들이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광주를 배터리 산업의 중심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 광주국세청, 세수실적 11조2022억... 전년보다 7.2% 증가

올해 광주국세청 세수실적이 8월 현재 11조2022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누계 세수실적(8월 기준)은 11조2022억원으로 전년 동월 10조4514억원 대비 7608억원(7.2%) 증가했다.

광주국세청은 내수 회복 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명목임금 상승과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등으로 세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광주국세청의 세수실적은 총 15조4706억원으로 국세청 전체 세수의 4.7%를 차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5조1000억원대(32.9%)로 가장 높고 소비세 4조1000억원(26.3%),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21.8%), 법인세 2조원(12.9%) 등의 순이

었다.

유류 관련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 소비세 비중은 26.3%다. 전국 평균 10.8%를 크게 웃도는 게 특징이다. 지역 특성상 제조업 점유비(5.4%)가 전국 평균(6.7%) 대비 낮고 소규모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무서별로는 여수세무서가 3조8269억원(24.7%)으로 가장 많았다. 북광주세무서 1조6282억원(10.5%), 나주세무서 1조4562억원(9.4%), 전주세무서 1조1366억원(7.4%), 서광주세무서 1조1059억원(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지역경제 위축과 관세리스크 등 경제여건이 불확실함에 따라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점검하겠다"며 "세원 취약분야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등 세입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홍주 기자

## 광주·전남 제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실적 목표가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회의)는 23일 지역 제조업체의 최근 경영실적 전망과 주요 애로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광주·전남 소재 제조기업 13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경영실적 전망 및 애로요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업의 매출·영업이익 전망, 경영여로 요인, 생산·조직 관리상 애로요인, 경기국회 기간 중 기업이 우려하거나 필요한 입법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광주·전남 제조업체 70% 전망... "올해 실적·영업익 미달"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0.1%가 올해 연간 매출이 목표를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 수준 달성은 24.6%, 초과 달성은 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증대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는 내수시장 침체(57.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출시장 경기 둔화(23.9%), 시장 경쟁상황 심화(11.2%)가 뒤를 이었다.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동시에 작

용하면서 지역 제조업의 매출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이익 전망 역시 70.9%의 기업이 목표치 미달을 예상했다. 영업수지 실적은 47.0%가 손익 분기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답변해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했다.

수익성을 악화시킨 가장 큰 요인으로는 원자재가 상승(41.8%), 인건비 상승(20.1%), 금융비용 증가(15.7%) 등으로 조

사됐다.

생산·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기업 자금사정(39.6%), 인력수급(28.4%) 등이 주요 애로로 지적되며 자금 유동성과 인력 확보 문제가 모두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

광주상공회의소 채화석 상근부회장은 "지역 기업들이 장기적인 내수 부진과 비용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놓여있다"며 "세제·금융 부담 완화 등 기업 활동 여건 개선과 함께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